

<컴패션 뉴스레터 1970년 9-10월호>

컴패션이 처음으로 “컴패션 가족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성조기(Old Glory)”가 매일 게양되는 시카고의 컴패션 본사 건물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습니다. 컴패션의 사무실 직원은 정규직과 파트타임 직원을 합쳐 약 50명입니다.

• **첫 번째 “컴패션 가족의 만남”**

이사회, 현지 직원, 본사 사무실 직원들로 구성된 컴패션 가족 전체가 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서부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7774 어빙파크 로드(Irving Park Road)에서 열렸습니다.

• **컨벤션 하이라이트**

컨벤션에서 가장 관심을 끈 내용은 현재 휴가 중인 에드 김볼(Ed Kimball) 현지 대표의 남아시아 관련 사역과 윌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대표의 특별 보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성과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잠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은 “한국의 날”로 선포되었으며, 윌리 에릭슨의 특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적어도 1986년까지는 한국에 머물 것을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사실에 후원자 여러분 모두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는 많은 복지기관들이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에 나왔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윌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철수” 연도를 임의로 1986년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재정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5년이라는 기간이 3번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국방비가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공산주의에 맞서 방어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공격 및 방어 무기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1푸에블로(Pueblo) 사건은 미국의 방어력을 더욱 강화하는

¹푸에블로호 피랍 사건(Pueblo Incident):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간 북한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 ([https://en.wikipedia.org/wiki/USS_Pueblo_\(AGER-2\)](https://en.wikipedia.org/wiki/USS_Pueblo_(AGER-2))).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952년 컴패션이 설립된 이래로 우리는 한국의 집 없는 어린이들과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매년 백오십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한국 보육원 지원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리는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59개 보육원에서 16,500명 이상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약 13,000명의 후원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이들은 또한 약 90명의 현지 전도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달러의 후원금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명의 가난한 어린이를 지원하며, 옷과 음식, 공교육 및 보육원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적절히 제공합니다.)

(사진)

-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현지 대표
- 에드 김볼(Ed Kimball) 남아시아 현지 대표

• 새로운 한국 프로젝트

컨벤션에서 월리는 컴패션이 한국에서 새로운 활동으로 다른 유형의 지원으로 확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인, 신체장애인, 한센병 환자들은 모두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의 훌륭한 도움 없이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인디애나주 다이어(Dyer) 출신인 월리는 시카고에서 3개월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현지로 복귀했습니다. 월리와 그의 아내 메리(Mary), 그리고 세 자녀는 1967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독 업무 외에도 한국 전역에서 성경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남아시아의 기회

6월 26일 금요일은 "남아시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태양이 강한 인도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지원, 그리고 다른 남아시아 민족들의 대조적인 문화에 대한 에드의 특별 보고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특별 세션에서 자바, 수마트라, 셀레베스(Celebes)섬, 보르네오(Borneo)섬과 같은 나라들의 문제와 잠재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컴패션은 헌신적인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약 7,000명의 가난한 어린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사역의 필요는 절실하지만,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인도 북부 일부 지역을 침략했습니다."라고 김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2년 안에 태국 북부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호주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도 남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드는 오늘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년 우리 보육원과 기타 기관을 적어도 서너 번씩 방문합니다. 이 일이 낭만적이고 흥미진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사역지"는 4,000마일(약 6,437킬로)에서 1,800마일(약 2,897킬로)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는 주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이로 인해 그의 시간 중 50% 이상을 싱가포르 사무실과 그의 아내 엘레노어(Eleanor), 두 딸과 떨어져 보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사업가들은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필요한 경우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김볼은 말합니다. "하지만 이곳 남아시아에서는 예를 들어, 자바에서 싱가포르까지 항공 우편이 2주가 걸리고, 전보는 3주가 걸립니다!" 물론 그는 불평하지 않으며,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기대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신뢰합니다.

남아시아의 느린 문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는 많은 경제적, 심지어 영적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바와 수마트라 해안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미국과 일본 사업가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수마트라에서는 기독교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최근 그곳에서 열린 일련의 모임에서 22명의 이슬람 여성들이 그리스도께 개종했고, 동료 신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남아시아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때문에 동료 시민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 인종적 긴장

에드는 또한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북쪽으로 300마일(약 483킬로) 떨어진 지역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나 3,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는 사실상 "인종 폭동"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역에서 컴패션 사역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약 2,000명의 어린이가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도에서 13개 보육원에서 약 600명을 돕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역을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6,000명의 어린이, 태국에서 250명의 어린이를 돕기 원하며, 그 외 더 많은 나라에서 돕기

원합니다. 우리의 리스트는 끝이 없어 보입니다.” 김볼의 보고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에드와 그의 가족은 싱가포르로 복귀하기 전 남은 휴가를 뉴저지(New Jersey) 지역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 **카리브해 지원 프로그램**

또 다른 컴패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후원자들과 친구들 덕분에 우리는 카리브해 여러 섬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역은 가난한 아이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도미니카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자메이카에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카리브해 지역을 위한 전임 현지 책임자 지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컴패션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향후 확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실하면서도 지속적인 선한 도움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희생적인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마산에 있는 러브 밸리 크리스천 보육원(Love Valley Christian Orphanage)의 어린이들은 이 '우주선(인공 위성)' 놀이기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컴패션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곳의 최경순(Choe Kyung Soon) 원장님은 “우리는 아주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컴패션 직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으며, 어린이들 모두 우주선 놀이기구에서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기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신 에드윈 킹스랜드(Edwin Kingland) 여사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WARM(따뜻함)은 베풀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류 후원 요청

컴패션의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덕분에 새 스웨터를 입은 이 어린 한국 소녀의 반응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소녀의 표정은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에 기부해 주신 여러분을 향한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970년 겨울이 되면, 약 23,000명의 가난한 컴패션 어린이들이 이 소중한 어린 소녀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겨울에 맞는 편안한 신발과 양말, 스웨터 및 기타 적절한 옷을 찾을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 대부분은 겨울이 몹시 추운 한국의 난방이 되지 않는 교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옷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여러분과 같은 너그러운 분들이 주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컴패션은 올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 서인도제도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기금을 보내고자 합니다. 물론 더 따뜻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에 적합한 의류를 구입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기부금 8달러는 가난한 어린이 한 명을 위한 의류 세트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의 어린이를 위해 16달러를 기부하시면, 한국 고아들이 손수 만든 동양 목각 인형이 담긴 상자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집을 장식할 수 있는 다채롭고 독특한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50달러 이상을 기부하시면, 앞서 언급한 8개의 목각 인형과 함께, 이 역시 수작업으로 제작된 8인치 크기의 나무 조각상도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부와 현재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 양식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린이들은 우리와 여러분을 믿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들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1970년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에 기꺼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 8달러, () 16달러, () 50달러, () _____ 달러의 수표(또는 우편환)를 동봉합니다.

내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이 양식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패션, 7774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신발을 갖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너그러운 후원자가 보내 주신 선물로 새 신발을 신고 노래를 부르는 남매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신은 신발입니다!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통해 컴패션은 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어린이들이 새 신발과 양말, 기타 여러 종류의 옷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언젠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발을 갖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컴패션이 보르네오에서 도움의 손길을 확장합니다.

보르네오 남부 반제르마신(Bandjermasin)의 어린이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며 구세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드 킴볼 컴패션 남아시아 현지 대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우리의 도움을 간청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난한 어린이와 과부들이 많이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들 중 일부를 위한 후원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영적인 일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일부 어린이들은 100개 이상의 성경 말씀을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배웠습니다.

음... 제 생일이 바뀔 수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일부 한국 어린이들의 생년월일이 며칠 정도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고대 동양의 방식인 음력으로 생일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음력은 1년이 33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어린이가 생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어린이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를 받게 된다면, 이는 단지 시대의 또 다른 징표, 즉 오래된 전통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에드 론(Ed Ronne)을 소개합니다.

컴패션의 새로운 직원, 에드 론(Ed Ronne) 커뮤니케이션 실장을 환영합니다.

그는 우리 <컴패션 매거진>의 편집자이며, 전국의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편집자들과의 연락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광고, 사진 촬영 및 기타 홍보 활동을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에드 론(Ed Ronne) 커뮤니케이션 실장

컴패션의 김이경(Kim Ei Kyung) 순회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편집자 주)

컴패션의 가장 신실한 한국 순회 전도사 중 한 명인 수원 출신의 64세 김이경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썼을 때 그의 아내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고, 이후 박선애(52, Park Seun Ae) 사모님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이제 7세와 15세인 두 딸의 양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출판 당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아마도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입양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전도사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앞으로 그의 사역에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이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그의 말로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의 고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북부의 외딴 시골 지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열한 살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저는 아무런 도움도, 힘도 없이 이 세상에 남겨진 완전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이후 한국의 암흑기로, 지금의 컴패션과 같은 사역이 없을 때였습니다. 고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때였고, 저는 빈 깡통을 들고 집집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의 집 지붕(처마) 밑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잤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많았고, 그때 저는 참으로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저의 작은 마음속에 사시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과 도움, 격려를 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며, 여러 가지 일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오래된 문화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들은 2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집도 없고, 무엇보다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장애가 있는 여자도 저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거리로, 교회에서 교회로, 시장에서 시장으로 다녔습니다. 제가 그분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속에는 기쁨과 노래가 넘쳤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훌륭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름다운 기독교 여성을 저에게 신부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웠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가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은 1950년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가적 비극의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두 자녀와 함께 고향(북한)을 떠나야 했고, 다른 두 자녀는 할머니(제 아내의 어머니)와 함께 남겨두고 한국으로 피난해야 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들과 북한에 남겨진 두 자녀를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이었지만, 여전히 소중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고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컴패션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남부 지역의 많은 보육원에 방문 설교를 하게 해 주심으로써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문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150개의 보육원을 방문했고, 200여 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의 작은 마음속에 '소망의 예수님'을 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개월 전, 저의 최고의 믿음의 동료이자 조력자였던 아내가 의사로부터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아내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64세이고, 아내 박선애(Park Seun Ae) 집사는 52세이며, 우리의 막내 딸은 7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시편 68:5). 저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줄을 믿습니다(야고보서 5:15).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분의 능력 있고 치유하시는 손길로 제 아내는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한국인 형제,

김이경

(사진)

김이경(Kim Ei Kyung) 전도사와 고인이 된 아내 박선애(Park Seun Ae) 사모

머나먼 인도 북부에서 전해진 행복한 미소

인도 북부 칸푸르(Kanpur)에 있는 칸푸르 메리만 학교(Kanpur Merriman School)에 행복한 소녀들이 모였습니다. 티베트 혈통의 이 소녀들 중 다수는 50년대 후반 중국 공산당이 장악했을 때 티베트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메리만 학교에서 컴패션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 사역자와 선교사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적인 한국 원장님이 보내온 간증문

“이곳에는 5세부터 20세까지의 어린이 14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불행한 어린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간증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며 일하는 컴패션, 그리고 컴패션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컴패션의 훌륭한 후원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11월 15일은 11월에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우리는 컴패션 친구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것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15일이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기부금을 컴패션에 보내는 마감일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어린이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 종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 보육원의 원장님들이 선물을 고르고, 어린이가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한 뒤, 선물을 들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을 촬영하여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어린이를 위하여 송금하는 기부금에는 제한이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아이티, 인도네시아에서는 5달러가 한도입니다(인도네시아 가족의 경우 10달러입니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10달러가 최고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어린이가 있는 보육원에서 아직 후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또는 보육원 자체에 특별 기부금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11월 15일을 기억하세요! 또한 여러분이 컴패션 본사에 보내는 기부금 100%는 전액 선물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특별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천 번의 감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15일 이전에 컴패션으로 수표를 보내 주세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p>컴패션 7774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p> <p>하기 수혜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금으로 ____달러의 수표를 동봉합니다. () 어린이, () 학생, () 성경 교사, () 전도사, () 보육원</p> <p>번호 및 이름: _____ 보육원 번호 및 이름: _____</p> <p>후원자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 컴패션 파일 번호: _____</p> <p>제출처: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p>

열한 번째 계명, 필요할까요? (유산 기부)

"네 유언을 남길지니라"

-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후원자 관리 이사

그리스도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한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지 않는 것은 항상 불편을 끼치며, 종종 가족에게 실제적인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설문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 미국 성인의 50% 이상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매주 수백만 달러가 유언장이 없어서 관할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 사람들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언장이 없다는 것과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 그들은 재산이 너무 적어서 유언장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법원이 그들처럼 "상식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분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공동 소유 계약이 유언장만큼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속 재산 처리 비용과 재산세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들은 어쨌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든 것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의견은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유언장이 없으면 주님의 일에 한 푼도 드릴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모가 모두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문제를 간과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유언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려줍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해 둔 이 준비를 통해 세상은 여러분이 좋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

머니, 아들, 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이 훌륭한 시민임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기술적인 사항들이 관련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진지하게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고자 하는 컴패션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는 유용한 정보가 담긴 소책자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37가지(37 Things People 'Know' About Wills That Aren't Really So)"를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원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요, 물론 우리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열한 번째 계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면 충분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읽어 보면, 적어도 그 절반 이상이 우리 동료 이웃에게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의 뜻을 세움으로써 선한 청지기가 되어 애정 어린 관심을 표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고, 오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무료 소책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소책자 제공!

도널드 J. 스미스(Donald J. Smith) 목사

후원자 관리 이사

컴패션

7774 West Irving Park Road

Chicago, Illinois 60634

저에게 무료 소책자 "사람들이 유언장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37가지"를 보내주십시오.

이름 _____

주소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우편번호 _____